

향토사 연구의 허실

金東旭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장 · 국문학

요즈음 향토사 연구의 모임이나 책자의 출판이 郡誌나 民俗誌의 형태로 유행하고 확산되고 있다. 일면 반갑고 두렵다. 반갑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실시에 발맞추어 지방문화가 溫釀될 기반이 형성되어간다는 것이고, 두렵다는 것은 향토사 연구 책자가 일차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고, 막대한 경비나 노력을 들이는 반면에 이렇다할 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학작품의 경우에 있어서도 습작시대의 작품이 그 작가의 의도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듯이, 이런 향토사 연구지의 경우도 아마추어 학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가 보면 아쉬운 면이 많다.

예를 들면, 민속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포먼트(정보제공자)에 관한 六何原則(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왜)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인용의 가치가 없는 것이 많고, 그 임포먼트의 이야기를 그 지방의 方言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쓸모 없는 경우도 많다. 우선 이 양자만 구비해도 이러한 자료는 민속학자에 의하여 원용되어, 크게는 한국문화의 연구에 그 記述자가 지방에 앉아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시 국민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再話되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다. 문헌의 경우는 우선 그 원문을 소개해주어야 할 것이다.

鄭來周의 문집에 의하면, 숙종시대 東萊은천의 온천장 빨랫돌에 신라시대 왕을 供奉해온 일의 119字의 史蹟碑비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래주는 이를 원문을 기록하지 않고 詩로 읊었다. 이런 태도가 秋史 金正喜의 北漢山碑에 바쳐진 그의 실학적인 업적의 진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동래부근의 학자들에게 이 碑의 발견을 10년래 중용하고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는 탄식 뿐이다. 이렇게 면밀히 원초적인 자료를 기록한다는 것이 향토사학자에게 우선 맡겨진 과제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述而不作의 태도를 견지하여 이를 보고해주면, 具眼之士가 이를 토대로 재연구할 기회를 물려받을 것이다.

大宇財團에서 이 향토사연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나는 2년 동안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향토사연구 학자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사들이 향토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데에 경탄하면서, 이런 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발견에서부터 그 素材의 해석까지 일관작업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이를 학계에 보고하고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려는 겸허한 마음가짐이 아쉬운 것 같다. 民具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하나의 도구라고 이를 그대로 수집할 것이 아니라, 이 도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소지자로부터 청취하여 기록해두어야 할 것이다. 어느 문화원에서는 이런 것을 2,000점을 수집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었으나, 이는 엄격히 말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지역성을 떠나 서울 長安坪에서 사들이는 민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향토사연구 인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발견이나 발굴보다는 이를 철저히 기록해두는 것이 문제이고, 자기에게 그 능력이 없다면 선불리 세상에 내어 놓아 골동품을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기록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학자는 제공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를 현창해주는 예의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을 당부해두고 싶다.

초점	2	활기 띠는 '東歐圈문학이론' 출판
출판화제	4	서점가의 총아, 꾸준히 읽히는 책들
세계의 추천도서	6	美컬럼비아대의 '그레이트 북' 54選 / 李重漢
화제	8	公益사업에 눈 돌리는 출판사들
서평	10	「화가 남궁씨의 수업」-白承喆 「높은 땅 낮은 이야기」-정한용 11 「百濟政治史研究」-李基東 「著作權의 法制와 實務」-朴元淳 12 「資本論研究 ①」-李大根 「헝가리·유고슬라비아」-이기영
연구소 출판	13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총서' 시리즈
베스트셀러社會史	14	李基白의 「韓國史新論」 / 金彥鎬
해외화제	18	호황기 맞는 미국의 '오디오 북' 산업
지금 독서중	20	샬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가수 趙英男씨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CPA 항공 趙敬淑씨 21 다니엘 부어스틴의 「發見者들」-교보문고 鄭石熙씨 토리 헤이든의 「한 아이」-동화구연가 朴永愛씨 22 崔一男의 「말의 뜻 사람의 뜻」-대한재보험 朴夏蓆씨 朴順萬의 「日本人의 詩情」-일본대사관 韓玉築씨 23 네 사진작가의 「國立公園」-시업가 宋基春씨
지금 번역중	23	마르탱 뒤 가르의 「티보寮의 사람들」-서울대 鄭智榮교수
컬러 화보	24	국제그림동화 原書 紙上展
교양논단	26	美學의 이해를 위한 독서 / 金文煥
저작구상	3	「性的 사회학」 / 金東一
작품구상	5	「작은 육이오 이야기」 / 송 영
얼굴	9	「과학기술상」 수상한 전파과학사 孫永壽사장
세계의 출판	28	슬링이는 미국의 잡지출판계·외
책의 세계	29	혼란의 60년대와 한권의 책 / 김호근
독자서평	19	「24시간 活用法」 「태백산맥」 30 신간안내 40 이달의 청소년도서 선정목록 41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6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 47 출판계 움직임 48 독서피플/정기구독 안내